

지역 지도자 메시지



“생각이 어떠하면”

부산 선교부장단

제 2 보좌 김 백 주

김볼 대관장님께서 쓰신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잠언 23장 7절을 늘 생각하게 되었으니 곧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는 귀절입니다. 사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의 종류에 의해 그 사람의 내적인 성품, 인품 및 외적인 행동과 태도가 결정된다 하겠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맥케이 대관장님께서도 “이 순간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닌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고, 거의 느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형성하며 외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 심지어 잠깐 생각하거나 무심히 생각한 것도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라고 우리의 생각에 대한 효과를 강조하셨습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진실한 교리는 오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만 꿈과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며(마 5:39)”라는 그리스도의 차원 높은 가르침이 인간의 본성과 부합되지 않는 환상적인 가르침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말일성도는 신앙개조 13조를 기억하며 이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 의 선행을 믿는다. ...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미 모든 것을 참아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일에 회복된 교회에 주신 위대한 사랑 가운데 영원한 진보의 법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창세 이전부터의 율법인 자유의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가면 영생을 얻고 승영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독교도들 사이에는 이 자유의지라는 어휘가 없습니다. 전세에서의 천국회의를 알 리가 없으며 예정설을 믿읍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행사될 수 없는 것이라 믿읍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행한 일에 관계없이 예정설에 입각하여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일할 자유가 없다는 그릇된 교리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맥콩키 장로, 몰몬 교리) 그러나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가 인간의 지상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창세 이전부터 준비된 주님의 공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과 악을 동시에 준비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시험의 단계인 이 지상생활을 통하여 스스로 자유의지를 훌륭히 행사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승영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과 악 중의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뿐 아니라 선과 선 가운데 어느 선을 택할 것인가를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롬니 부 대관장님은 “나는 사물을 대할 때 항상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아 왔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한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엘마는 “나의 아들아, 네가 젊었을 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 또한 젊을 때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엘 37:35)”고 했읍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기를 바라시는 많은 일들을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미루지 않고 수행하는 성도로 성장해 가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선한 일을 하면서 낙담해서는 안되겠읍니다. 할 일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참으로 우리는 교회의 일을 수행하면서 다음의 귀절을 마음에 새기며 일해야겠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9~30)”

교회 및 지역 소식

새로운 계보 정책

계보 절차 간편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이 제정되어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기록 제출자는 앞으로 죽은 자를 위한 신전 의식이 완료된 날짜를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신전 의식을 위하여 기록이 확인되면, 기록 제출자는 제출된 이름에 대한 약자 번호를 받는다. 이 번호는 집행될 의식을 나타내 주므로 기록 제출자는 곧 자신의 가족 기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증전에는 실제 의식 집행 완료 일자를 받기 전에는 완성된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계보과 책임자인 조지 에이치 퍼지 형제는 이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강조점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 가족의 조상을 조사하지 않은 교회 회원은 자신의 기록에 의식 날짜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주요 관심사는 의식이 집행되었다는 사실 뿐이죠. 바로 그것을 말해 주는 것이 약자 번호입니다.

“신전 의식의 공식 기록은 개인의 집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한 의식 일자를 알고 싶은 사람은 개별적으로 컴퓨터 철 색인(CFI)을 참조하거나 계보과에 문의하여 자료를 찾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컴퓨터 철 색인은 대부분의 계보 지부에 비치되어 있으며 집회소도서실이나 가족 기록 보관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신청 양식, “신전 의식 색인 신청”(PFGS0073)을 사용하여 이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기록 제출자가 앞으로 죽은 조상들의 의식 집행 일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이 일은 계보과에서 맡게 된다. 한 사람의 철을 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50센트이다. 기록 제출자가 한 사람에 관한 자료를 세 가지 기록 절에서부터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1불 50센트를 신청양식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원주 지부 개설

지난 8월 15일, 서울 선교부는 경기 인천 지방부 산하 원주 지부를 조직하였다. 1975년 12월 29일, 최초로 복음 선교사가 원주 지역에 발을 디딘지 8개월만에 14명의 새로운 회원으로 지부가 조직된 것이다.

지부장에는 현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 조수 장로, 제일 보좌에는 윤 세형 형제 그리고 제2 보좌에는 김 동희 형제가 각기 부름을 받았다.

아직 보조 조직으로는 주일학교와 상호부조회만이 조직되었으나, 모든 회원들은 새로운 마음과 열의로 원주 지부 발전에 큰 희망을 갖고 있다.

테톤 홍수 복구를 위한 성도들의 노력

지난 6월 5일에 일어난 테톤 댐 붕괴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희생자를 돕기 위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 회원들은 거의 100만 시간에 달하는 노력 봉사를 기꺼이 바쳤다.

아이다호 지역 교회 복지 지도자인 해롤드 지 힐람 형제의 발표에 의하면 매일 4만 5천여 명의 회원이 아이다호 피해 복구 지역에 투입되어 청소와 보수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61만 시간의 노력 봉사와 27만 시간의 여행 시간을 들여 이 지역에 와서 봉사하였다. 이들은 주로 남부 아이다호주, 북부 유타주, 남서부 와이오밍주에서 온 성도들이었으며, 멀리 솔트레이크시티와 빌링즈, 몬타나에서도 전세 차를 내어온 사람들이 많았다.

교회 회원은 또한 많은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힐람 형제는 이번의 복구 작업은 기적과도 같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10주 전에 렉스버그에 와서 피해 상황을 본 사람이 지금 다시 와서 본다면 그와 같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와 같은 기적은 수많은 말일성도와 미국 적십자사, 기타 다른 교회와 기관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모든 복구 작업은 교회 신권 복지 기구의 지시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말하고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팀이 짜여져 있어 이와 같은 큰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도 성도들은 그들이 배운 지식과 쌓아온 훈련을 그대로 적용하여 난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학 연구원

제1회 졸업식 및 입학식

1976년 9월 4일, 오후 4시, 신학 연구원은 신학 연구원 강당에서 교회의 신권 지도자와 학부모를 모시고 역사적인 제1회 졸업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김 차봉 형제의 사회로 진행된 이 졸업식에서 이 호남 신학 연구원 원장과 유진 피 톨 서울 선교부장, 한 인상부 산 선교부장이 졸업생들에게 격려사를 하였다.

신학 연구원은 1972년 9월에 개원된 이래 2년과 4년 과정을 통해 574명의 졸업생과 174명의 개종자와 14명의 선교사를 배출한 바 있다.

이번 제1회 졸업식에서는 13명의 4년 개근생과 4명의 우등생에게 상장이 수여되었다.

졸업식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신학 연구원 신입생 입학식이 속행되었다. 이날 새로 입학하는 101명의 신입생들은 입학 선서를 한 후 입학 허가를 받았다.

이 호남 신학 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교육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행동의 변화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들 신입생들은 신학 연구원 4년 과정을 통하여 복음을 익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깊은 사명감을 되새기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학기부터는 대학원 과정이 신설되었으며 입학 자격은 대학부 과정 졸업자에게만 주어진다고 한다.

총관리 역원이 감리한 인천 지방 대회

지난 9월 18, 19일 양일에 걸쳐 인천 지방 대회가 인천 지부에서 개최되었다.

18일 토요일 6시 반에 개최된 "문화의 밤"에서는 지방부 산하 지부 회원들이 노래, 무용, 소극 등 우리의 고유 문화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회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날의 모임에는 뉴 호라이즌과 텐더 애플즈가 협찬하여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임을 더욱 실감케 해 주었다. 이 모임에는 십이사도 보조인 애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 톨 선교부장 내외와 선교부장단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19일 일요일 오전 신권 역원회와 상호부조회 모임에 이어 일반 총회가 총관리 역원인 고마쯔 장로의 감리하에 열렸다. 이 대회에서 6명의 형제가 새로 장로로 지지받았다.

고마쯔 장로는 "희생"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시면서 "보라, 인자가 올 때까지는 오늘이라 부르리니, 진실로 지금은 희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날이라"(교성



64:23)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시어 성도들의 하루 하루가 바로 희생의 날이 되도록 힘쓰고, 동경 신전 건축 기금 모금에 적극 참여하고, 온 가족이 신전에서 인봉받기 위해 준비하라고 당부하였다.

이 모임에는 316명이 참석하였으며, 멀리 안양에서 13명, 성남에서 13명, 새로 조직된 화곡 지부에서 26명, 강원도 원주 지부에서 8명, 송탄에서 4명이 참석하였다.

서울 스테이크 제2와드 신축 건물 준공

지난 9월 1일 오후 7시 제2와드에서는 교회 지도자와 내외 귀빈 및 성도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축 예배당의 준공식이 있었다. 이 모임은 1부 영적인 순서 2부 기념 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1부 순서에서는 조 규영 감독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이 건물의 건축에 공이 컸던 피어슨 형제와 김 상호 형제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고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의 말씀이 있었다. 2부 공연 순서에는 뉴호라이즌과 텐더 애플즈의 특별 공연과 2와드 형제 자매들의 노래와 춤의 향연이 있었다.

건평 250평의 2층 건물에 예배당, 활동실, 유년 주일학교 집회실 그밖에 7개의 공과방, 침례탕, 집회소 도서실, 감독실 등을 두고 있는 이 건물은 완벽하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특수 방음 장치와 음향 장치는 물론 국내 최초로 크라이그 룸(육아실)을 갖추고 있다. 이 건물은 지난해 9월 13일에 착공하여 만 1년만에 완공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제2와드 회원들의 마음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요람이 될 것이며 이 지역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화곡지구 개설

1976년 9월 15일에 화곡 지부가 정식으로 발족을 보았다. 서울 선교부 팀 선교부장의 감리로 진행된 이날 첫 모임에는 서울 스테이크의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과 최욱환 형제가 참석하여 이 모임을 더욱 뜻깊게 하였다.

팀 선교부장은 이날 일찌기 존 앨런 장로와 접견을 갖고 그를 지부장으로 성임하였다. 그와 동반자인 닐 머레이 장로가 일주일 전에 화곡동에 도착하여 현재 이 지역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사람은 넷이 되었다.

한편 앨런 지부장의 제1보좌로는 이 도환 형제가, 제2보좌로는 한 지상 형제가 각기 부름을 받았다. 이들은 지부 보조 조직 역원 인선 작업에 여념이 없다.

화곡 지부 개설은 팀 선교부장의 계획이 실천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복음 계획은 성남시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김 호직 박사 17주기 추도식

회복된 복음을 이땅에 뿌리박게 했고 북극동 선교부 한국 지방부 초대 지방부장과 문교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는 김 호직 박사의 17주기 추도식이 8월 30일 오전 10시 망우리에 있는 고인의 묘소에서 미망인 박 필근 자매와 유족, 이 호남 서울 스테이크 부장, 유진 팀 서울 선교부장등 평소에 고인의 뜻을 기리는 여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구 중식 형제의 집례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평소 고인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 "예수께 오라"(찬송가 91장)를 부르면서 시작한 이 추도식에서 유진 팀 서울 선교부장은 고인이 이 땅에 심은 물론 정신을 주모하였고, 이어서 이 호남 서울 스테이크 부장은 항상 주님과 의논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고인의 행적을 더듬으면서 지금 이 땅에 참된 교회가 번성하게 된 것은 고 김 박사님이 그 터를 닦아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추모하였다.

한 인상 부산 선교부장은 고 김 호직 박사의 기일을 당하여 화환을 보내왔다.